

【 시티 & 피쳐 】

광주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확정

배차간격 10분... 요금 1천원

광주시가 오는 11월 준(準)공영제 시행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시내버스 요금도 100원 정도 올린다.

광주시는 11일 환승체계 구축과 중복노선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공개했다.

노선개편안은 현행 77개 노선에서 87개 노선으로 늘리는 대신 20~30%에 달하는 중복노선을 폐지했다. 87개 노선은 상무·첨단·송정지구 등 대생활권 잇는 5개 급행 간선 노선과 간선 19개 노선·지선 63개 노선 등이다. <표 참조>

번호체계도 새 노선 개편에 맞춰 모두 2자리 수로 바꾸고 번호 앞에 출발지의 지역명을 표기했다.

이에 따라 급행간선 노선은 지역명 뒤에 01번~09번이 부여되고, 간선노선은 10번~49번, 지선은 50번~99번, 시계외 및 공영노선은 각각 100번과 200번 대가 주어진다.

현행 120번은 첨단 40, 113번은 임곡 90번 등으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급행 간선 버스(빨강)와 간선버스(청색), 지선 버스(녹색) 등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버스별로 색깔을 달리 표현했고, 1시간이내의 무제한 환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시내권 배차간격은 30분에서 10분대로 줄고 개별 노선제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2일부터 이같은 노선개편안에 대한 자치구별 공청회를 계속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는 이날 버스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버스노선개편과 함께 요금을 성인기준으로 100원 인상을 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 버스요금은 성인 900원, 중·고생 650원, 초등생 200원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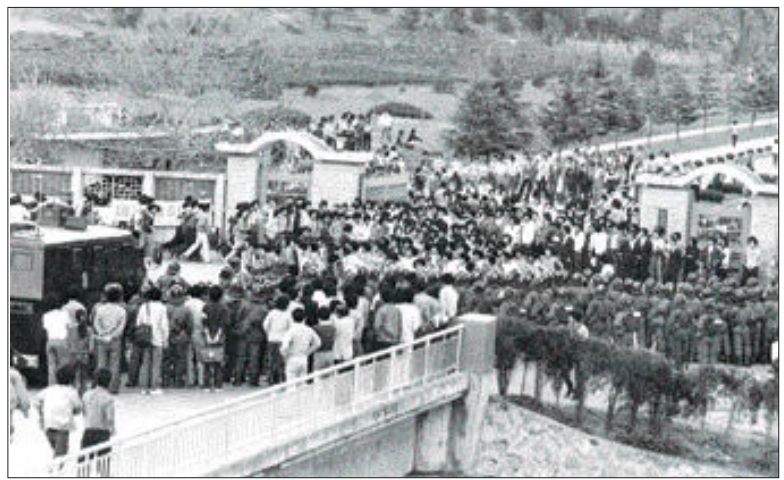


11월 부터 시행하게 될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Table with 5 columns: 노선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배차간격. Lists various bus rout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5 columns: 노선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배차간격. Lists various bus routes and their details.



5·18광주민주화운동 2주기를 기념한 1984년 5월18일 전남대생들이 정문 앞에서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 정문·다리 옛모습 되살린다

모형으로 정문앞 소공원에 복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출발지인 전남대 정문과 마지막 비극의 장소인 5·18구묘지가 옛 모습을 되찾는다.

광주시는 11월 '5·18사적지보존위원회'를 열어 전남대 정문과 5·18구묘지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등 훼손돼 가는 '5·18성지'를 복원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18 27주기 전에 전남대 정문과 옛 다리의 모형을 현 전남대 정문 오른쪽 소공원에 복원할 계획이다.

도 5·18 구묘역의 경우 침몰한 지반을 보수하고, 관상수와 사전을 등을 정비해 예전에 모습을 되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전남대 정문앞 등 9개 사적지의 표지석을 시민들이 보다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남대 정문앞은 80년 5월 18일 오전 9시에 휴교령 속에 등교하던 전남대생들이 끈기를 휘두르던 공수부대원들에게 피로 항거한 곳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장엄한 서막을 연 현장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광주 상무나이트' (Gwangju Sangmun Night)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entertainment and dining.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